문화기획 컴퓨터게임 문화의 실태와 분석

교육과 반교육 갈림길에 선 컴퓨터게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치고 게임에 한두번쯤 몸두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게임은 컴퓨터의 양념같은 것으로, 윈도즈나 OS/2 등 최근에 관심을 끌고있는 운영체제들에는 '지뢰찾기'등의 게임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글틀인 '아래아한글'에도 얼마전까지는 테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컴퓨터게임의 대명사인 테트리스는 화려한 그림에 뛰어난 음악까지 겸한 최단 게임들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케이드게임'으로 분류되는 이런 종류의 게임으로 시작된 컴퓨터게임분야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실제상황과 거의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시뮬레이션게임'이나 자신이 주인공이 돼 게임의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롤플레잉게임'등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가상현실'기법을 도입한 게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게임은 초보자들에게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의 구실을 한다. '한메타자교사'나 '혀르미'같은 타자연습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게임을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타자실력을 기른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윈도즈나 OS/2에 들어있는 게임들도 그림운영체제의 사용법을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는 도구의 구실을 한다.

컴퓨터기술의 측면에서도 게임은 쳐지않은 공헌을 한다. 멀티미디어나 가상현실기법을 가장 먼저 응용해 실용화한 것이 게임이고 이 때문에 컴퓨터게임은 가장 앞선 기술의 전시물 구실을 한다.

게임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교육분야일 것이다. 타자연습용 게임이 가장 초보적인 형태라면, CD롬에 담긴 어린이용 외국어단어맞추기 게임, 호수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생태계를 되살리는 게임, 낚시를 하며 물고기의 특징을 익히는 게임, 중세유럽이나 현대미국 등을 여행하며 도둑을 추적하는 '샌더애고'능은 컴퓨터와 게임의 장점을 교육에 가장 이상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나 가정이 컴퓨터를 갖추고 게임과 교육을 결합시킨 수많은 동시에 교육인 이런 형태가 컴퓨터게임의 미래상이라면 현재의 모습은 폭력, 음란, 외설이라고 할수 있다.

얼마전에 필자는 컴퓨터통신망 '하이텔'에서 '코브라미션'이라는 게임을 찾느라고 몇시간씩 헤맨 적이 있다. 직업상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한 일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을란할까"라는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한때 하이텔 자료실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이 게임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주위사람들 얘기로는 실해도 너무 심하다는 이 게임은 게임의 명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외설적인 게임들의 악영향을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게임과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CD롬, 레이저디스크 등 첨단매체의 실용화로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설·폭력 몸살 또 다른 고민

경쟁력 차원 넘어 우리문화 지켜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게임을 찾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곧 이런 게임에 싫증을 느끼기 쉽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의 폭력성이 아닐까 싶다. 음란한 게임들이 사람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속에 파고드는 힘에 있어서는 폭력이 더욱 교묘하고 강하다는 생각때문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폐를 흘리는 잠면 등은 실제와 너무나 흡사해졌다. 이런 잔인한 모습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리고 부수고하는 게임들은 꼽을 수없을 정도로 많다.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갖지만 게임만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도 드물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컴퓨터가 흔해지고 이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컴퓨터와 컴퓨터게임을 접하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컴퓨터게임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나 골치거리라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한가지 고민거리가 더있다.

우리 정서와는 한없이 거리가 먼 서양과 일본의 게임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이 우리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메뉴나 도움말도 영어나 일본어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우리말로 바꾼 것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게임 전체와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인기가 높은 게임들은 대부분 외국산이어 우리나라 게임제작자들도 외국것을 흉내내기에 바쁘다. 그나마도 극히 일부만이 상품가치가 있을 뿐 많은 게임들은 사용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단순한 오락용 게임도 국산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교육용 게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도스, 윈도즈 같은 운영체제나 워드프로세서 등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데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앞으로는 CD롬 등 첨단 매체에 자신들의 문화를 실어 세계지배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맞서는 일이 기술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우리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 기 섭
〈한겨레신문 기자〉

□영화평 … *아담이 눈 뜰 때*

원작의 필연성 못살린 억지 멜러물

"그녀를 안을 때 나는 男子가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체인 여배우의 쏙 들어간 허리께에 그녀의 가늘고 긴팔에 싸인 얼굴을 대고있는 무표정한 아담, 최재성의 말이다. 이 포스터만 보아도 소설 '아담이 눈뜰때'가 어떻게 영화화되었는지 쉬게 짐작할 수 있다. 빠져나오는 관객들의 표정이 '속았다'는 허탈함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며 '속았구나'하고 들어간 나와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허탈함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며 '속았을 줄이'를 하고 들어간 나와 친구는 이 한 편의 '코미에로물'을 참을 수 없는 지겨움을 느끼며 감상해야 했다. '서울무지개'를 기억하고 감독의 연출력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그 감독에게 안스러운 연민의 감정이 들 만큼 이 영화는 초반부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는데 물론 그것은, 전혀 의도되지 않은 바이므로 '기막혀'웃는 웃음이었다.

우선,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 '아담이 눈뜰때'를 보자. 작품이 시작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이 똑같이 '내 나이 열아홉 살, 그 때 내가 가장 서 만난 은선('아담'은 바로 은선과의 처음 섹스에서 은선이 붙인 이름이다), 디스코텍 크에서 만난 현재, 후기섹슈얼리즘을 추구한다는 여류화가, 오디오점을 하며 상대남자와의 정신적 교감을 중시한다는 호모중년남자, 서울의 여관에서 부른 창녀 에이미들과 순서대로 섹스를 하고 사이사이에 서로 삶과 세계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는다. 여기에는 이 시대의 주요 이슈인 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이란는 주제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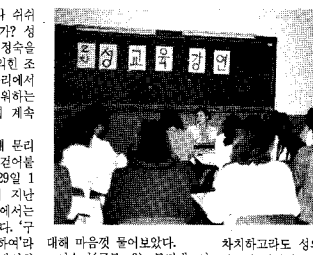
줄거리만을 놓고 보면 영화 역시 같은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추구하는 주제에서 영화는 원작소설과 한참 떨어져 그야말로 '원작을 바꿨습니다'의 꼴이다. 소설에서 장정일이 보여준 이 시대의 통과제의로서의 사회, 제도, 권위등과 스스로에게까지 향하는 격렬한 반항과 우울한 소외감은 사라지고 내면이 없는(원작에서의 아주 황폐한 그것이더라도 내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아담과 주위인물들은 눈요기감으로도 별로인 섹스씬만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대사에 있어서도 원작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관념적인 사변은 거의 없고 각색되어 삽입된 어처구니없는 대사가 계속 튀어나와 관객들을 실소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주인공R의 소설이 그대로 옮겨진 영화 '경마장 가는길'이 소설과는 또 다른 대사의 맛을 보여준 사례를 생각해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이다.

김호선감독의 포커스는 그녀를 안을 때 男子(한자로 쓸 때의 이 표한 뉘앙스/)가 된다는 아담, 최재성의 좋은 '몸'에 있었을까?

이 선 주(문리대 영문·4)

문리대 여학 주최 성교육 강연

"여성해방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성(性)이란 언제까지나 쉬쉬해야 할 영원한 금기인가? 성에 대한 무지가 여성의 정숙을 가름하고, 3류잡지에서 익힌 조잡한 성지식으로 술자리에서 떠벌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풍조와 세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문리대 여학생회에서 골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달 29일 1차 성교육 강의에 이어 지난 14일 문리대 201강의실에서는 2차 성교육 강연이 열렸다. '구체적인 성과 생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에선 경희의료원 한방부인과 김은기(본교 한의학 89년 졸)씨가 강사로 출연, △성의 결정과 성의 생리 △성기능 장애 △과임법 △성폭행 등의 내용들을 다소 심도 있게 강의했다. 90여분의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응답시간이 계속되었는데 학생들은 평소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 마음껏 물어보았다.

이순미(국문·3) 문리대 여학생회장은 "여압되고 폐쇄적인 성을 자유롭고 공개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연 취지를 설명하고 "성이란 인간적인 신뢰와 책임 아래 당당하고도 건강하게 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그릇된 생각의 퇴치, 여성해방은 인간의 문제이다. 성의 공개화, 여성문제 인식의 남녀 공유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 드문드문 보인 남학생들 중의 한명인 곽민욱(국문·1)군의 강연 참가 배경에서 한가닥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성과 여성에 관련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인간의 문제입니다"

〈김중석 記者〉

□교수투고 *연변학술대회를 다녀와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만남

평시에도 나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보니 더욱 그랬다. 허약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침 8시 반에 김포에 모여 천진에 도착하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북경에 도착하여 2시간 동안 관광하고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장춘에 도착하여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아침 10시가 지나서 연변 대학에 도착하고 도착하는 즉시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저녁미변 술, 그 원수 같은 술이 매일 저녁,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쌓여 있다. 떡주 반컵의 주량 밖에 타고 나지 못한 나에게 그 지독한 고량주로 잔을 채우고 눈을 맞추면서 한잔을 단숨에 마셔야 하는 분위기에서 빠져 나와 본 저녁이 없었다.

또, 학술회의에 참석하려 가는데 내가 준비한 것은 전혀 학술적이 아니다. 반성문이나 호소문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은 분단이 아니라 상처일 뿐이며, 서로 같아진 다음에 합치자는 것은 합치지 말자는 뜻이며, 문화는 분열의 능력이 아니라 결합의 능력이며, 문화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예견하고 준비하는 조심성이라는 것, 그래서 문화적으로 만나서 수도도 정해보고 지역 반전이나 도덕관 등도 정립해 놓자'는 것을 누서 없이 엮어 가지고 갔으니 회의를 즐길 수도 없었다. 엉성한 논문을 가지고 학술회의에 가는 것 처럼 맥 빠지는 일도 없다.

파곤한 일정과 맥 없는 논문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보다도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즐거웠다. 사회, 경제, 경영, 회계학의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중국의 조선족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래서 이틀은 연길성장의 초대도 받았고 또 연길과 심양에 있는 여러기관들이 앞으로 무슨 교류를 하자는 제의에 서명도 하였으며 또 사회학을 발표한 교수는 연변 무슨회의의 고문도 되었다. 이들의 신바람이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덜 피곤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마도 이런 이유 보다는 북한, 중국, 소련, 일본에서 온 동포들과 만난 흥분때문일 것이다. 이들과의 만남은 학술적인 만남이라기 보다는 정의 만남이었고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하는 만남이었다. 흥분은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삶의 기운인 것 같다.

혈육의 정은 사람을 조급하고 서둘리지게 한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결례를 하게 마련이다. 가진 것은 무엇이던지 주고 싶은 마음 뿐이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옷과 돈 뿐이다. 연변은 추울 것이라고 짐작하여 오리털 잠바를 입고 갔다. 그러나 어제 오늘 만난 사람에게 이런 것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주고 싶은 마음을 누르기도 쉽지 않고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축구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땀에 젖은 축구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을 머리 속에 그려 보면서 시계를 보았다. "몸이 약해 뵈누만"하면서 정답게 술잔을 내미는 손목에는 김일성 주석의 표시가 있는 시계가 매어 있었다. 내 시계와 바꿀 수만 있다면 이번 여행의 기념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북으로 가신 내 친구에게 주면 그 집의 가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시계는 바꿀 수 있는 시계가 못된다. 또 그럴 만한 시계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북에 고향을 둔 친구와 도문에 갔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면 날달리 의연하여서 벤 손으로 3·8선을 넘어 온 경력이 아직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도문은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 앞에는 두만강이 흐르고 두만강을 기로 지른 다리가 있다. 두만강은 푸르지도 도도하지도 않은 작은 강이며, 넓지도 않은 다리를 지키는 군인은 늠름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젊고 예쁘장한 군인 하나 뿐이다. 다리 위에는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에는 망원경이 있다. 눈으로 보면 강 건너의 집과 거리가 보이고 사람이 다니는 것도 보인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창살과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눈으로 또 망원경으로 건너 마을을 보다가 그 친구를 보니 건너 마을을 바라보는 눈이 빨갛다. 마음이 간절하면 눈이 빨개진다."그렇게 가고 싶으면 건너 가 보시지. 장애물 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 말 대꾸도 안하고 돌아서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해 보일 수가 없다. 다리를 건너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보다는 비겁함을 느끼게 하였다.

시멘트 다리든 이념의 다리든 건너 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혈육의 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성이다. 이러한 지성은 지성이 아니라 짬게이다.

돈지갑도 오리털 잠바도 그대로 들고 오면서 이번 여행은 정의 여행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논문을 이런 회의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10여일 동안 천방지축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돌아 왔는데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의 여행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주어 보지도 못하고 서로 통해 보지도 못한 나 혼자 만의 정이었지만 정은 소중한 것이었다. 정으로 하는 대화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다. 정은 민감하기 때문에 오해를 낳기 쉽다. 정의 민감성이 부담스러워 정다운 친구가 없던 내가 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것은 나이가 들고 철이 나기 때문 만일까? 연변에서 유학하고 있는 졸업생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론에 붙어 있기 보다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 오길 기대한다.

남 기 영
〈문리대교수·철학〉

"청년기자는 앵무새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성 대 신 문 사 상 황

1993년.3.22. 발행중지!
총장과 주간교수는 "1면과 7면의 교수임용 교육부 허위보고에 대한 기사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면 삭제 요구, 2면(사회기획) top-'김영삼 정권의 노농정책과 노동계 대응방안'필자(전노협 정책실장)의 소속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삭제, 5면(학술기획) 외부침탁기사 삭제, 8면(생활여론)의 독자통신, 독자 만평이 과격하고 선동적이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요구.

서 경 대 학 보 사 상 황

1992.6.8. 300호 특집호 발행중지!
총장과 주간교수는 "1면 특집화보가 과격하다. 11면의 교명변경 반대권고가 학교측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작을 마친 학보를 발행중지 시켰다. 학교측에서는 300호 인쇄비(1,873,300원)를 포함, 1992년도에 발행됐던 298호(930,000원)와 299호(500,000) 인쇄비를 조판소(교통신문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교홍보지화 음모를 반대합니다!

한성대학당국은 교수임용 허위보고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나,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성대 신문사쪽에서 제작한 호외를 배포하자 주간교수와 학생처 직원들이 신문사에 와서 호외를 모두 달라고 협박하고, '정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성대, 서경대학당국이 유신시대에나 있을법한 원고검열로 학내문제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치부가 언론에 의해 드러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학내기사의 삭제는 학교 안으로는 학생들의 자주적으로 조직된 투쟁을, 밖으로는 학부모나 기타 민주단체/시민들의 함의여론을 두려워한 학교당국의 노골적인 음해입니다.
이의 손쉬운 해결인 학교당국의 「대학신문 학교홍보지화」음모에 대해 우리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부(건) 기자들은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그같은 음모를 분쇄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한성대신문사, 서경대학보사 기자들의 자주언론 쟁취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12기 전대기련 서울지부(건)